

## 이즈모오야시로 신사: 본전의 변화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는 창건 이래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되었습니다. 센구(신령을 옮기는 의식)의 전통('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정기적인 재건')은 신사의 경내와 구조, 특히 본전의 외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즈모오야시로와 신들의 땅의 제사' 전시에서는 각 시대별로 추정되는 본전의 모습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본전은 상당히 대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2000년에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기까지 물리적인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나와노고조에이사시즈』(본전의 평면도)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작성된 이 그림에서는 본전의 9개 기둥이 3×3 형태로 배치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3m에 이르는 기둥은 통목 3개를 금속줄로 묶어 제작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구 계단의 길이가 약 109m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한 규모의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본전 주변에서 여러 기둥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과거에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설에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기둥의 크기와 배치가 『가나와노고조에이사시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48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 본전의 정확한 모습을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1/50 크기의 5가지 모형은 각 건축가들이 본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형들은 불교 건축의 영향을 받아 붉게 도색된 본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인근 천태종 사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1609년의 디오라마에서는 붉게 도색된 본전과 신전, 경내에 지어진 삼층탑(전통적인 불교 건축) 등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1667년에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를 대규모로 재건할 때는 불교적인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1667년에 신전의 대규모 개조에 나서면서 본전과 주변 건축물에는 도색칠을 하지 않았고, 불교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루는 파괴되었습니다. 종루에 있던 종과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웅장한 삼층탑은 다른 종교 시설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사의 모습이 크게 변화한 1667년 당시의 모습은 디오라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

습니다. 1744년에 건립된 지금의 본전은 1667년 당시의 본전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수차례 재건된 본전은 1744년 이후, 특히 1952년에 지금의 건물이 국보로 지정된 후로는 재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약 60년마다 대규모 유지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3년에 노송나무 껍질 지붕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전시실 안쪽 벽에는 1881년부터 1953년까지 지붕을 장식했던 두 갈래로 엇갈린 모양의 거대한 지붕 머리 장식과 동 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